

교황, 서방 교회에 아시아 중시 메시지

내년 1월 필리핀 방문... 일본도 검토

14~18일 방한때 對北평화메시지 주목

사흘 앞으로 다가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은 세속주의에 찌든 서방 중심의 로마 가톨릭 세계에 앞으로 아시아의 가톨릭을 중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선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전임 베네딕도 16세가 재임 8년 동안 한반도 아시아를 방문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년 1월 스리랑카와 아시아 최대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이다.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젊었을 때 일본 선교사가 되길 꿈꿨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본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 교황의 이 같은 행보는 우선 아시아 전체 인구의 3.2%에 불과하지만 급성장세를 보이는 아시아 가톨릭 신자들을 격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아시아 가톨릭은 사회 정의 등의 이슈가 전면부 부각돼 있는데 바로 이점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향과 맞아떨어진다고 허핑턴포스트는 분석했다.

교황은 특히 산업화된 서구사회의 가톨릭 교회가 성도덕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가난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허핑턴포스트는 이번 방한에 대해 “로마 가톨릭이 아시아 가톨릭에 더 열린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이번 방한을 위해 교황으로서 처음으로 중국 영공을 통과하는 만큼,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베이징 당국과 어떻게 관계 개선을 이뤄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보스톤글로브는 십자군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과 평화를 추구한 성(聖)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딴 교황이 비무장지대(DMZ) 너머 종교탄압을 일삼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지도 지켜볼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16세기 당시 예수회 선교사로 가톨릭의 중국화에 앞장선 마테오 리치를 높이 평가한다.



남미 출신인 교황은 또 시리아 내전 등의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서구 열강보다 러시아와 중국에 더 가까운 입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방한을 위해 교황으로서 처음으로 중국 영공을 통과하는 만큼,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베이징 당국과 어떻게 관계 개선을 이뤄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보스톤글로브는 십자군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과 평화를 추구한 성(聖)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딴 교황이 비무장지대(DMZ) 너머 종교탄압을 일삼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지도 지켜볼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슈퍼문 사이로 비친 아폴로 신전

그리스 코린트의 아폴로 신전에 위로 슈퍼문이 환하게 빛나고 있다. 슈퍼문은 달이 지구에 14% 정도 가까워져 크게 보이는 것으로 일반 보름달보다 30% 이상 밝다. 연합뉴스

ARF서 북핵 6자 회담국 입장차 재확인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北, 4차 핵실험카드 만지나

갈 길 먼 6자회담 재개... 을지훈련이 또 다른 고비될듯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북핵대화 재개에 대한 6자 회담국간 입장차가 재확인됐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요지부동이라는 것이 다시 드러났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10일 열린 ARF에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따른 결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북한은 4차 핵실험 카드도 다시 열어두는 분위기다.

북측 대표단으로 참가한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약식 기자회견에서 4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어떤 행동도 다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7일에도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난하며 대응조

치로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준비동향을 보였던 지난 4월 말 “핵실험엔 시효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북한이 핵실험 카드를 UFG까지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도 북한의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핵실험 언급이) 최근 두 번 연속으로 3개월 만에 나왔는데 이것이 과연 행동을 예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전략의 일환인지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면서 북한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미일 3국은 이번 ARF 계기에 10일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UFG 전후로 도발 양

상을 보이고 이에 한미 양국의 대응이 맞물릴 경우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긴장 국면으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UFG에도 별다른 큰 정세 변화가 없으면 9월부터 6자회담 등 북핵대화 재개를 위한 관련국의 협력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중 3국은 북핵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비핵화 사전 조치를 놓고는 한미 양국과 중국 간에 온도차가 있는 상태다.

중국은 지난 8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비핵화 대화 재개’ 쪽에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중국이 의장국이니 6자회담 개시가 필요하다는데 방점을 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관련국간 협력이 시작돼도 북핵대화 재개에 대한 입장차를 완전히 좁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 대통령궁까지 나서

한국인 신변안전 보장 다짐

필리핀에서 외국인 대상 범죄가 최근 계속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의 필리핀 기피 현상이 우려되자 필리핀 대통령궁까지 나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신변안전 보장을 다짐했다.

에르미니오 콜로마 필리핀 대통령궁 공보국장은 11일 필리핀 dz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치안 부재로) 필리핀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궁이 직접 나서 외국인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한다고 밝힌 것은 특히 이례적이다.

콜로마 국장은 특히 필리핀 경찰과 법무부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외국인 대상 범죄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혔다.

필리핀에서는 3월 한국인 여대생 1명이 납치돼 살해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한국인 배모(58)씨가 납치범들에 저항하다 사망하는 등 올해 들어 각종 범죄사건으로 9명의 한국인이 목숨을 잃었다.

WHO, 에볼라 확산 방지 위해

검증안된 치료제 사용 여부 결정

세계보건기구(WHO)는 11일(현지시간)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아직 안전성 검증을 받지 못한 시험 단계의 치료제를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

에 대해 결정한다. WHO는 의료 윤리 전문가와 백신 분야 과학자들로 구성된 의료 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없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험단계에 있는 치료제의 사용을 인정할지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에볼라 바이러스 시험용 치료제 사용 논란은 서아프리카에서 감염된 미국인 환자 2명이 ‘지맵’(ZMapp)이라는 실험용 약제를 투여받고 상태가 호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WHO 의료 윤리위는 치료나 예방 과정에서의 부작용 등이 알려지지 않은 안전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시험단계의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윤리적인지, 만일 사용하게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조건으로 이 시험용 치료제를 투여하도록 할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쿠바 수도 아바나에 한인 후손들 문화원 개원

‘공산권 국가’ 쿠바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들을 위한 문화원이 처음으로 세워졌다. 쿠바 한인후손회 회원 150여 명은 10일(현지시간) 쿠바 수도 아바나의 신시가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중미·카리브지역협의회가 건립을 주도한 문화원 회관은 지역 13개국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코트라 아바나무역관의 지원, 쿠바 호세마르티 문화원의 협조로 이뤄졌다.

문화원에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박물관과 이민 역사 유물 전시관, 학교 학교 교실 등의 공간이 마련됐다.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홍보지 및 판촉물

전단지

현수막

상패

상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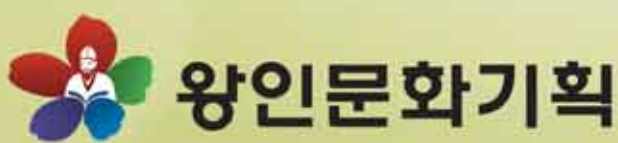
전단지

각종 인쇄물

현수막

각종 인쇄물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